

유차니(환경조경디자인학 2021)
김정원(환경조경디자인학 2021)
이지운(환경조경디자인학 2020) | 12면 인터뷰

'아슬라 학생상'에서 환경조경
디자인학과 학생 세 명이
지난 5월 '일반디자인'
부문 명예상을 받았다.
이들을 만나 작품에
담긴 고민과 준비
과정을 들어본다.

유차니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 · 대리인 자격 관련 세칙 부재 | 2면 종합

중운위가 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미술, 치과, 의대 학생회장의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과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 1749 호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대학주보

재정운용간담회 열려 등록금 인상여부 미정 올해 인상분 인프라에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재정운용간담회가 지난 25일 청운관 B117호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올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담당과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이 참여했다. 올해 예산 현황과 등록금 인상분 재원 투입 현황,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 팀장은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이 약 100~11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주요 투입 분야는 ▲교육시설투자(45~50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35~40억 원) ▲연구비(20억 원)다.

등록금 인상분은 교내 인프라 개선에 적극 반영됐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 환경 개선 공사와 일부 건물 방수 공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가 대표적이다. 국제캠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건물 화장실 리모델링, 건물 방수 공사 등을 예로 들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학교 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등록금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논의 중”이라며 “만일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인상률 상한선은 3%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등록금 인상분을 놓고 교직원 임금과 관련한 학생 질문이 나왔다. 정경대 학생회 신하균(사회학 2023) 회장이 “등록금 인상 이후 교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팀장은 “우리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5% 인상을 요구하

고 있다”며 “타 대학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교직원 임금도 2~3.5%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학교 교직원 임금 협상은 아직 본교섭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 및 인프라 관련 질문도 있었다. 약학대 학생회 정예원(약학 2022) 회장은 “의학 및 약학계열은 기존 등록금이 높아 등록금 인상분이 타 학과보다 높은 편”이라며 “메디컬 계열 학우들을 위해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김 팀장은 “의학 계열을 위해서만 예산 집행을 발제하진 않지만, 의학 계열을 위한 공사가 많은 편”이라며 “등록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만큼 의학 계열에 자율예산이 더 많이 집계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예산 외에 배정·집행되는 추가 예산 사용처도 공개됐다. 학교 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추가 예산이 ▲시설 관리비(47.7억 원) ▲교내 장학금(24.4억 원) ▲학생지원비(11.5억 원)에 쓰였다고 밝혔다.

학생지원비는 주로 현장 실습 학기제나 외국인 유학생 단체 보험 등에 쓰였다. 연구비는 별도 증액은 없었으나, 집행액은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억 원 증가했다.



기획조정처 김 팀장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상된다면 상한선은 3% 내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김규연 기자)



미대 김동연 교수 퇴임 기념전 <<청출어람 靑出於藍>>, 교수부터 학부생까지 전시 참여

미술대학 김동연(미술교육학) 교수 퇴임 기념전 <<청출어람 靑出於藍>>이 지난 20일까지 우리학교 미술관 KUMA에서 열렸다. 그와 연이 있는 교수진과 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전시에 참여했다. 1층에는 김 교수의 작품이, 2층에는 대학원생 작품이, 3~4층에는 학부생 작품이 전시됐다. 김 교수는 “4층의 미술관을 가득 메우며 교수로서의 시간의 보람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큰 의미를 주는 전시였다”며 “기획하고 준비해준 모든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조한음 기자)

“AI 활용 연구지원에 최우선” 폐해 예방할 교육도 병행해야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연재-대학 AI 위원회 출범
② AI 활용에 대한 구성원 의견

우리학교는 지난 8월 AI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 차원의 AI 시스템을 구축해 영역 전반에서 혁신적인 활용을 실현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 AI 위원회가 아직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신문은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4회에 걸쳐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우리신문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묻는 ‘우리학교 AI 활용 관련 학생

교수자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지난 23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또한 교수 11인과 학생 7인에게 연구와 학업에서 AI를 활용한 경험 및 향후 우리학교 AI 시스템을 향한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설문조사에서 AI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구성원들은 AI 활용에서 ‘글쓰기 및 전반적인 작업용 AI인 챗GPT, Grok, Gemini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AI 활용 목적은 정보·지식의 활용(자료 검색, 정리, 분석, 학습 지원 등)이 컸다.

우리학교 구성원, AI 활용
연구 지원에 가장 많은 응답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AI 활용에서 무엇보다 ‘연구 지원(논문 검색·정리, 데이터 분석, 실험 보조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3면에 계속 →

사령

명 <정기자>
강다윤(일본어학 2025)
김가빈(미디어학 2024)
김민영(미디어학 2025)
김예찬(스포츠의학 2025)
도은오(응용수학 2025)
박류빈(사회학 2024)
서라수(사회학 2025)
서민주(스포츠의학 2025)
오승현(정치외교학 2022)
이서현(미디어학 2024)
이수연(의상학 2024)
이은서(경영학 2024)
이주은(환경조경디자인학 2024)
이재형(무역학 2025)
조한음(미디어학 2024)
천유정(프랑스어학 2024)
최단(주거환경학 2024)
한민(철학 2025)

2 종합

중운위, 불참 사유 인정 · 대리인 자격 관련 기준 부재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미술, 치과, 의과대학 학생회장의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과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이 부재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1조 5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임시 2차 회의를 포함하면 미대는 연속 5회, 의대는 연속 3회, 치대는 6회 연속 불참한 상태다.

중운위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참여 및 의결권 모두를 갖지 못해 회의록으로 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

다. 이처럼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 조치가 걸려 있음에도, 실제 회칙에는 불참 사유서 제출 의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불참의 정당성을 판단할 공식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운위는 세 개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운위에서 불참사유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의 경우, 불참할 경우 반드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학생회칙 제30조 6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차기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불참 시 불참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유서의 타당성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그러나 정작 중운위는 이러한 사유서 제출 의무조차 없는 탓에, 현재 세 단과대 회장의 불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문화된 절차가 전무한 상태다.

확운위와 중운위 모두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세칙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관례로 판단해 왔다. 제16회 중운위 속기록에 따르면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확운위의 경우 관혼상제, 천재지변, 질병, 아르바이트, 여행이 주요 불참 사유”였으며 “중운위는 소속 단위 행사 주체의 신분을 띠는 경우, 천재지변, 관혼상제, 질병, 군 관련 일정, 그리고 특정 단위의 대표 자임을 감안하고도 참석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리인 관련 세칙 또한 부재한 상

황이며 이 역시 관례로 적용되고 있다. 관례로 적용해 온 바에 따르면, 학생회장이 불참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학생회 다른 임원인 경우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례는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습으로 인해 6회 연속 불참한 치대 김기연(치의학 2022) 회장은 지난 중운위 회의에서 “치대 부학생회장은 같은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월요일 19시에 실습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치대 대리인으로서 중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운위 회의는 매주 월요일 19시에 열린다.

불참 인정 사유, 불참사유서 제출, 그리고 대리인 관련 사항 모두

세칙이 아닌 관례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엄 학생회장은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중운위와 확운위 관련 세칙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도 “해마다 중운위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인한 불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불참’이라는 의견과 ‘단위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엄 학생회장은 “타학교 역시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세칙과 관련해서 부총학생회장과의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개정에 대한 진척도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가을 대동제 ‘아델란테’ 우천 변수에 공연·부스 운영 차질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가을 대동제 ‘아델란테’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다만 일부 초청 아티스트 공연이 취소되고 1·2일 차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흘간 진행된 축제 중 1·2일 차에는 일일 강수량 46mm가량의 큰 비가 내려 부스 운영·무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일간 비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비가 세차게 내린 오후 2시경부터 늦은 오후까지 학

생 부스는 운영되지 못했다. 이 시간 동안 부스 대부분 바닥에 물이 차올랐고, 부스 운영진은 비를 피해 철수하기 바빴다.

도예학과 학생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판매한 ‘은채네 동물 농장’ 부스를 운영했던 신혜리(도예학 2024) 씨는 “축제 1일 차 때 비가와서 발목이 넘도록 물이 차올라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며 “사람이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 부스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구부 프런트 KBF는 “축제 1일 차부터 많은 비가 내려 다른 부스들이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축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오전 시간에는 방문 학생 수도 적어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공연에도 차질이 있었다. 1일 차 아티스트 밴드 ‘실리카겔’은 당일 리허설 도중 비로 인해 공연 장비가 일부 파손되어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리허설이 축소된 채 무대 재점비 시간이 이어지고, 저녁 학생 공연 시간이 한 시간 지연됐다.

1일 차 학생 공연에 참여한 우리 학교 응원단 ‘컬스라’의 김윤진(반도체공학 2024) 응원단장은 “리허설 시간에 충분히 맞춰봐야 했던 공연 요소들을 맞추지 못했다”며 “바



축제 1일 차에는 폭우가 쏟아져 부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몇몇 부스는 기존 운영 시간보다 일찍 철수해야 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닥이 미끄러워 무대의 타일을 밟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총학은 공연 리허설을 취소한 대신, 공연 시간을 한 시간 지연하고 공연 직전 짧게나마 공연 팀에게 리허설 시간을 제공했다. 컬스라 측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단원들이 있었으나 큰 부상 없이 무대를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구부 프런트는 “학생회 차원에서 축제 시작부터 미운영 동아리를 파악하고 상황을 관리했다”며 “특히 부스가 진흙탕이 돼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회 측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우천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만 밝혔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1면에서 계속 →

교수와 학생 모두 연구 현장에서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심기완(영어교육)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며 기초적인 문헌 자료 및 통계와 같은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대규모 언어모델(LLM)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 현장에서 AI를 보다 정교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응용학과 김태경(경영학) 교수도 “일상생활 용도의 LLM 사용은 이미 보편화됐다”며 “앞으로 AI는 연구와 지적자산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이현(물리학 석사 2기) 씨는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반도체 물질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를 찾기 위해 SCISpace(논문 분석 AI 툴)를 적극 활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없는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기도 해서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하고 있다”며 “연구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문 검색에 특화된 AI 툴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AI 교육 · 행정 수요 잇달아
단순 업무 크게 감소

한편 ‘교육 지원(수업자료 제작, 맞춤형 학습 지원, 자동 채점·피드백 등)’에 대한 AI 활용도 연구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조교 업무를 대신하는 AI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기계공학과 김상현(기계공학) 교수는 바이브 코딩과 함께 하는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구글 Gemini를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Gemini CLI는 학생들의 틀린 부분을 검수하거나, 주석도 달아주고, 학생들의 질문도 받아준다”며 “조교 업무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괄 채점 등의 조교 업무를 대신해 주는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교육 분야뿐 아니라 ‘행정 영역(규정 검색, 상담 챗봇, 행정 업무 자동화 등)’에서도 AI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위해 스무 개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던 지리학과 최서희(지리학) 교수는 “AI 자동완성으로 행정서류 양식에 인적 사항을 중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RISE 사업의 캠퍼스 톤디자인 수업 관련 제출 서류는 17 종으로, 각각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학내 부서와 하루 종일 전화가 닿지 않은 경험이 있는 원자력공학과 허균영(원자력시스템공학)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사례를 언급했다. 허 교수는 “해외 대학의 사례처럼 이메일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챗봇 등을 운영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수강신청 등 행정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뒤적거리거나 전화를 돌리는 학생들을 여럿 보았다는 소프트웨어학과 박상근(지식서비스공학) 교수도 “행정 쪽에 AI가 잘 활용된다면 학생과 교직원 모두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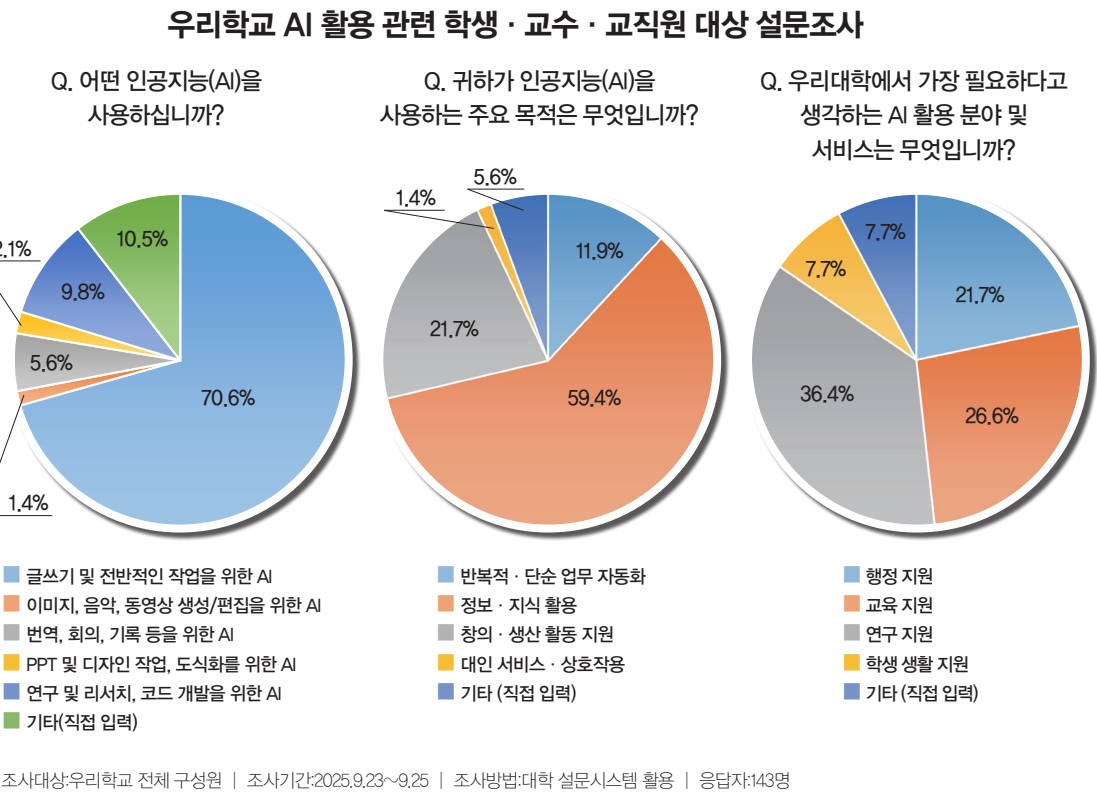
AI 도입 및 사용
신중한 접근 필요한 목소리도

교무위원들이 모인 고학연찬회에서 우리학교 AI 위원회는 사용자 참여형 생성형 AI 서비스 등 생성형 AI 플랫폼의 시범 도입안을 발표했다. 사용자 참여형 생성형 AI 서비스란 챗GPT, 구글 제미니 등 LLM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교내 AI 도입 및 사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다. 김태경 교수는 AI 위원회가 소개한 사용자 참여형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오픈 AI, 제미니 등을 단순히 묶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인공지능 투자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제이슨 바커(Jason Barker)(철학) 교수는 “AI 도입이 연구나 업무에 있어 유익할 수 있는 측면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AI 도구가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AI의 무분별한 도입을 반대했다.

인터뷰에 응한 다수의 교수들은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특히 우려했다. 박상근 교수는 “챗지피티나 제미니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엉뚱한 답을 알려줘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수진은 AI 교육 강화를 해법으로 꼽았다. ‘AI 활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AI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학생 대상 AI 교육과 더불어, 교수 대상 AI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우주과학과 박수종(천문학) 교수는 “AI 사용 난이도는 교수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연령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AI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Hansol

2025 한솔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09.22(월) - 10.10(금)

공고 자세히
알아보기

우리는 당신이 일과 삶에 **몰입**하고 **성장**하도록 함께 합니다.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6년 2월까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그룹 내 타계열사 중복 지원 불가

채용회사

한솔제지,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홀딩고, 한솔테크닉스, 한솔아이원스, 한솔PNS IT, 한솔인티큐브, 한솔케미칼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careerhansol.com>)

기타사항

- 전형 세부 내용은 각 계열사별 상이할 수 있음
- 서류접수 기간 이후 일정은 각 계열사별 상이할 수 있음
- 한솔인티큐브 및 한솔PNS IT부문은 기술테스트 (Coding 등) 진행 예정

서류 전형

AI 면접

실무 면접

임원면접

4 종합

공대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 대학 전체 AI 생태계로 논문 작성부터 행정까지...‘혁신’ 실험 시작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학문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행정업무 전반에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난 4월 공과대학은 AI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AI 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 중인지 참여 위원들을 만났다.

공대 학장 제안으로 출범 각 과 신입 교원으로 구성

AI 위원회는 최진환(기계공학) 공대 학장의 제안으로 출발했다. 위원회를 제안하며 그는 “AI 기술을 단과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입해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단순한 미래 전망이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AI를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실험해 보는 뜻이었다.

위원장은 임재혁(기계공학) 교수가 맡았다. 이전부터 AI를 활용한 대학원 생활 활용법 강의, 최신 인공지능기법 및 구조해석, 딥러닝과 미시역학 모델재생성 등 AI 기술 활용 관련 꾸준한 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그 배경이었다.

“작년 대한기계학회에서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던 임 교수를 처음 만났죠. 임 교수가 여러 분야에서 AI 활용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학장은 임 교수를 위원장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게 임 교수는 신입 교원임에도 위원장을 맡게 됐다.

“AI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이기에, 신입 교원들이 기술 활용에 더 능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의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최 학장은 AI의 특성에 맞게 공대 각 학과에서 1명씩,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신입 교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임재혁(기계공학)교수 ▲김영훈(산업공학) 교수 ▲백장운(건축학) 교수 ▲김석현(수자원시스템공학) ▲조형태(화학공학)교수 ▲황경은(건축학) 교수 ▲유창규(화학공학) 교수가 위원회를 구성



공대 AI 위원회는 최진환 공대 학장의 제안으로 출발했다. 해당 위원회는 신입 교원으로만 구성됐는데,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신입 교원들이 기술 활용에 능숙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임 교수 제공)

하게 됐다.

연구분야 활용을 넘어 교내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AI

“처음에는 학문적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곧 교내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임 위원장은 초기에는 교수 연구 분야에 국한된 논의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학생과 교직원까지 체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주제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AI 연구 방향과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대 AI 위원회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백 교수가 주도한 ‘논문 작성 보조 AI 에이전트’와 김영훈 교수가 이끈 ‘행정업무 보조 AI 에이전트’가 있다.

백 교수는 실제 연구 중 불편을 겪은 경험에 착안해 여러 논문 보조 AI 프로그램의 장점을 보완하는 논문 작성 보조 AI 에이전트를 고안했다. 이는 논문 작성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법적 정확성과 가독

성을 높인다. 또 데이터 시각화를 쉽게 지원해 연구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백 교수는 “2주라는 단기간 내에 완성했다”며 “몇 년 전부터 고민하던 내용이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훈 교수팀이 개발한 에이전트는 교직원들의 학사 및 규정 업무를 지원한다. 베타테스트 결과, 단순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필요한 규정과 출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테스트에 참여한 최정미 행정계장은 “AI 활용 이후 업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을 체감했다”며 “전에 없던 경희대 고유의 AI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AI 윤리적 문제와 AI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AI를 활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I 위원회가 마주한 문제와 개선점은 아직 남아있다. 백 교수가 고안한 AI 에이전트는 예민한 윤리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백 교수는 “논

“

공대 AI 위원회는
추후 우수 연구 수행 및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

에이전트 프로그램 또한 과제가 남아있다. 학생마다 졸업 요건 등의 규정이 달리 적용돼 예외가 존재하는 점 때문이다. 아직 정식 사용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다.

김 교수는 “다양한 규정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위원회 교수들은 AI가 도출해 낸 결과를 의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석현 교수는 “AI를 하나의 협력자로 인식하되, AI가 도출해 내는 결과를 항상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 AI 위원회는 추후 우수 연구 수행 및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 학장은 “현재 연구 수행 업무의 50% 정도를 AI가 대체하고 있으며 비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에게도 AI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해 더 높은 수준의 논문 생성과 대학원생 유치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공대 AI 위원회가 타 단과대에도 좋은 자극제가 돼 좀 더 큰 AI 위원회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작성 시 논문 형식과 내용의 획일화, 연구자의 창의적 역량 저하, 데이터 오류 등 AI 에이전트가 지닌 민감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AI 보조 조교

PBF 2025 미래세대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내년은 17년 만에 세계시민포럼 개최 계획도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올해 세계기상기구의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했다.’는 발표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이 말한 기념사 중 일부다. 조 이사장은 “오늘의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핵, UAP(미확인항공현상) 등 새로운 이슈에 이유를 묻고 과거와 다른 도전과제를 맞이할 때임을 강조했다.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25 Peace BAR Festival(PBF)’이 지난 19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특별 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1982년 이래 매년 인류사회의 평화와 미래문명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PBF를 개최하고 있다. PBF에서 BAR은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PBF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로, 세계 석학들이 모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문명과 지구의 생명을 아우르는 공동의식을 되돌아보고 미래 정치와 시민의 실천에 대해 논의했다.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서로 연대하고 진실을 얘기할 때”

특별 대담에서는 조 이사장과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석한 하버드 대학교 나옴 오레스케스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프린스턴 대학교의 존 아이켄베리 국제정치학 석좌교수가 5년 만에 만나 그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했다. 이들은 5년 사이에 팬데믹, 핵무기 확산, 전쟁, AI 등 장 등 여러 복잡한 사건들의 발생을 언급하며 오늘날 인류는 더욱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과거 양극체제에서 오늘의 세계는 다극화됐지만 오히려 누구 하나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선임관장은 “자본주의는 많이 확산했지만 민주주의 전파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오늘날 세계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오레스케스 교수는 “학문 분야는 생물, 물리, 철학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배고픔, 질병, 기후변화, 소득의 불평등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며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한 여러 문제를 진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마틴 리터 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은 “현 위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정치적인 정치가 필요하며 서로 연대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과거 하벨의 도덕적 책임과 정치활동에서의 반정치적 정치를 강조했다.

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인 할렘 브룬틀란드 전 총리는 “오늘날 우리는 지구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인간의 삶, 자연 생물다양성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행성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가 응답한 PBF “진정한 행성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이번 PBF에서는 석학들과 미래세대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다. 세대는 다르지만, 현재 같은 행성 문제를 맞닥뜨린 이들은 인간의 가치부터 교육까지 여러 고민을 주고받았다.

학생 패널로 참여한 박시은(국제학 2022) 씨는 “기후변화, 정치적 도전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은 “어떤 가치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종교, 정치 등 여러 관점에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수연(정치외교학 2023) 씨는 “기존의 틀을 넘어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과 캠퍼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행성 시민이자 변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오카야마대 요코이 아츠후미 부총장은 “행성 지구와 인간의 웰빙을 위한 교육적 조치로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멘토십 프로그램(멘토링과 인턴십을 합친 프로그램), 교과과정 개혁, 리더십 포용, 변혁적 교육학을 강조했다.



① 조 이사장은 특별대담에서 “새로운 이슈에 이유를 묻고 과거와 다른 도전과제를 맞이할 때”라고 강조했다. ② 학생 패널로 참여한 박 시은 “기후변화, 정치적 도전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진=김유경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시은(경영학 2024) 씨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관점을 많이 들어보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PBF “10년 뒤 PBF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내년도 PBF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2026년에는 제45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제2회 미원평화상,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

포럼이 개최된다.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포럼은 지난 2009년에 UN, 유네스코, NGO협의체 등의 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다. 내년 기념행사는 세계평화의 날인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미래문명원은 “내년 행사를 위해 전 세계에 보내는 오픈 레터(open letter)를 기획하고 있다”며 “편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필요를 알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원평화상 수상

절차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개교기념일에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PBF가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단순한 행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문명원 김원수 원장은 “앞으로 PBF의 목표는 대학이라는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학술 연구에서 시작해 실천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며 “10년 뒤 PBF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는 소망을 얘기했다.

6 기획

“냉장고 속엔 물과 두유만 덩그러니” 1인 가구 식생활, 배달과 포기의 경계에서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자취 2년 차에 접어든 이덕수(미디어학 2020) 씨는 요리를 하지 않아 냉장고에는 물과 두유만 있다고 설명한다. “점심은 학식으로, 저녁은 집 근처에서 사 먹죠.” 그가 말하는 식사 감각은 ‘배불리기’가 아니라, 그저 ‘채우기’에 가깝다.

이 씨는 “처음에는 본가에서 반찬을 챙겨오기도 했는데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해 먹는 걸 접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계란 후라이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덕수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간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나혼산족이 겪는 가장 큰 생활상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로, 응답자 10명 중 4명(42.6%)이 꼽았다. 혼자 먹는 식사는 단순히 ‘외롭다’는 정서를 넘어, 실제 삶의 질과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부분 외식·배달로 끼니 해결 1인분 소비자 겨냥 서비스 등장도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홀로 사는 맹보영(무역학 2022)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자취 초기에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도 해보았지만, 남는 식재료 처리의 번거로움, 조리·설거지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해 먹는 것과 배달하는 것의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 맞물리며 결국 배달을 선택하게 됐다.

“처음엔 요리도 했어요. 그런데 식재료는 남고, 요리하면 설거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더라고요.” 맹 씨는 혼자 사는 자취생의 식사 루틴이 그렇게 고정됐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애거나 ‘한 그릇 메뉴’ 카테고리 도입하는 등, 1인분 소비자를 겨냥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소비 트렌드가 아닌, 식사라는 일상 자체가 개인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과 가전이 허락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요리



자취방의 좁은 구조, 작은 가전, 비좁은 동선은 자취생에게 ‘요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자연스레 배달·간편식 섭취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청년 1인가구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방식 자체와 맞닿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끼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돌보는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배달과 간편식 중심으로 생활이 고정되는 데는 공간 제약이라는 근본 이유도 작용한다. 자취 6개월 차에 접어든 장민서

(사회학 2025) 씨는 도마보다도 좁은 조리대 위에서 도마를 덜컹거리며 채소 손질을 한다. 장 씨는 “부엌이 좁아 요리하기가 불편하다”며 “간신히 칼질을 한다”고 말한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은 조리를 상정하지 않은 구조가 많다. 1~2구짜리 화구는 그마저도 냄비 2개를 동시에 올려놓지 못할 만큼 작고, 조리대 없는 싱크대도 흔하다. 이에 더해 수납공간이 부족하게 설계된 부엌은 요리 시도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냉장고 용량도 문제다. 김영서(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씨는 성인 여자 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냉장고에 식료품을 쭉서 넣기에 바쁘다. 김 씨는 “자취방 냉장고는 식료품을 다 넣기에 벅차다”며 “특히 냉동실 사이즈가 너무 작아 냉동식품을 구비해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룸은 주방과 침실, 옷장의 구분이 없다. 작은 창문 탓에 옷가지와 침구류의 냄새 걱정도 빼놓을 수 없다. 장 씨는 “원룸이다 보니 환기가 잘 안된다”며 “요리를 한 번 하면 냄

새가 진동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좁은 구조, 작은 가전, 비좁은 동선은 자취생에게 ‘요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조리과 설거지를 위한 여유 공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조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배달·간편식 섭취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다시 밥을 차리는 삶

실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영향을 줘서 다시 자취 요리로 회귀하는 1인 가구도 늘고 있다. 배달 음식의 자극적인 맛, 무너진 식사 밸런스에 대한 우려 등도 주된 이유다.

맹보영 씨는 “자취 초기에 배달 음식을 자주 먹다 장 트러블이 심해졌다”고 고백한다. 신유빈(미디어학 2024) 씨 역시 “피부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자취 2년 차 김영서 씨는 최근 배달을 줄이고 소박한 자취 요리를 시작했다.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맛이다 똑같았어요. 너무 기름지고,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요.” 그는 요즘 밥에 채소와 달걀을 곁들이는 식사를 자주 한다. “밥이 있으면 가능한 한 단백질이나 야채를 꼭 넣으려고 해요. 그렇게라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미안하죠.”

장민서 씨도 마찬가지다.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잖아요. 배달 음식은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트에서 장을 봐두고 간단히 해 먹어요.” 그는 2주에 한 번은 마트에 들러 채소나 밀키트 등을 사두고, 작게나마 ‘나를 위한 식사’를 차린다.

청년 1인가구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방식 자체와 맞닿아 있다. 누군가는 배달로, 또 누군가는 작은 냄비와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짓는다. 그것이 불편함을 감수한 선택이든, 건강을 위한 회귀든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감각이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끼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돌보는 방식’일 수 있다.

‘다닥다닥 커뮤니티’, 수원 행궁동서 지역과 만나다

로컬콘텐츠 중점 사업, 대학-지역 경계 허물어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가을이 찾아와 맑고 쾌청했던 지난 25일, 수원 팔달구 행궁동에는 ‘다닥다닥 커뮤니티’가 열렸다. 이는 우리학교가 ‘2025 로컬콘텐츠중점대학’에 선정돼 추진 중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닥다닥’은 대학 · 학생 · 지역이 경계 없이 붙어서 협력한다는 의미다. 문화예술 전시, 관련 포럼, 팝업스토어 골목이 형성된 행궁동 현장을 찾아가 봤다.

100년 시장과 시민 다시 이은 전시 ‘왜 로컬인가’ 주제로 담론장 펼쳐지기도

발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팔달문화센터였다. 야외에 마련된 ‘다닥다닥 마켓: 백상회(白象會) 포스터 전시’는 우리학교 학생과 국내 · 외 기성 디자이너 100명의 작품이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져 전시되고 있었다.

전시 주제는 ‘없는 걸 팝니다’였다. 수원 남문시장에서 팔지 않을 것 같은 ‘가상의 무언가’를 상정해 포스터로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참가자 개개인의 상상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글자뿐만 구성된 포스터부터 점 · 선 · 면으로만 만들어진 포스터, 마치 장수돌침대를 연상시키는 B급 감성의 포스터도 있었다.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역사와 공존하는 도시의 매력을 담거나, 사계절을 음식처럼 담아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이날 ‘고요를 담은 캔’을 전시한 중국인 유학생 위광(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박사 5기) 씨는 “시끄러운 현대에서 고요는 이미 하나의

사치가 되었다”며 “언제든 고요를 즐길 수 있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모르고 우연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많았다. 마실 나왔다는 한 주민은 “산책하러 나왔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며 웃으며 말했다.

야외 전시의 열기는 ‘로컬브랜드 매니페스토’라는 담론의 장으로 이어졌다. ‘왜 로컬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 여섯 명의 연사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시선에서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박상희(시각디자인학) 로컬콘텐츠사업단장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네 가지 사막(교육 · 사유 · 교수법 · 제도의 사막화)’에 빗대어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로컬 전체를 교육의 공유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은 장소를 활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장소를 만드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포라이’가 정말 많아져야 합니다!” 강연 도중 모범생의 틀을 깨야 한 다며 박 교수는 이같이 외쳤다. 강연장에서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박 교수의 ‘윤택한 포라이’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했다.

골목따라 줄줄이 이어진 팝업 아기자기한 키템부터 약과까지

행궁동 골목골목에는 팝업스토어가 줄줄이 이어진 ‘다닥다닥 타운마이스’를 만나볼 수 있었다. 도시의 높은 건물과 수원 화성의 탁 트인 전경은 대조를 이루면서도 하나의 특



①주민이 백상회 전시회를 구경하고 있다. ②팔복덕방 굿즈 티셔츠가 진열돼 있다. (사진=이서현 기자)

색처럼 어우러졌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있는 ‘팔복덕방’에서는 직접 제작한 아기자기한 키템과 스티커, 티셔츠를 팔고 있었다.

팔복덕방의 육정민(시각디자인학 2020) 씨는 상호명에 대해 “‘팔달산의 복을 담은 방’이라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팔달산은 수원시 팔달구를 대표하는 산이다. 그는 “무기력한 청년 세대에겐 윤택한 웃음을 주자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실제 팝업까지 이어져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찾은 곳은 ‘행궁동 약사들’ 팝업스토어였다. 이들은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약과를 새롭게 브랜드화

해 선보였다. 기획을 맡은 손지민(관광학 2024) 씨는 “‘행궁다과’ 사장님을 만나 수원 약과 맛에 반해 시작된 프로젝트”라며, “사장님의 오랜 고민이던 포장지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호관대 소속인 손 씨는 프로젝트를 위해 예디대 학생과 협력했다. 손 씨는 “소상공인과 소통은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수없이 디자인을 수정하며 고생한 디자인팀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행궁동에서의 뜨거운 실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다음 챕터를 열다

이날 학생들은 지역 사회공동체에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했다. 이날 참여한 김세하(산업디자인학 2023) 씨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경험은 특별했다”며 “가상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행궁동이라는 실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행궁동을 처음 찾았다는 시민 이유정 씨는 “학생들의 활동 덕분에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안고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첫발을 댄 ‘다닥다닥 프로젝트’에 대해 박 교수는 “학생들이 지역과 ‘우당탕’ 부딪치며 겪는 과정이 너무 예뻐 보인다”며 “내년 도에는 버전 2.0으로 진화된 모델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교육, 연구, 실천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플랫폼으로 서는 것을 지향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자율주행버스 타볼까, ‘장한평역↔경희의료원’ 14일부터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서울】자율주행버스 ‘동대문 A01’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장한평역~경희의료원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 될 전망이다.

동대문 A01번은 장한평역을 기점으로 ▲장안2동주민센터 ▲전동초등학교 ▲답십리도서관 ▲청량리역 6번 출구 ▲세종대왕기념관 ▲서울바이오허브 ▲경희의료원을 지난다. 장한평역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며, 하루 6회 운행한다. 장한평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청량리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는 약 20분 소요된다. ‘서울시 교통약자도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

업’의 일환으로, 요금은 정식 운행 전까지 무료다.

차량에 적용된 자율주행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협회(SAE) 기준 3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로, 인공지능·센서·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단계다. 자율주행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운전자 개입이 줄어든다.

차량은 15인승 규모를 총 2대 운영한다. 도로 상황과 제한 속도에 맞춰 최대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한다. 자율주행이지만 운전기사가 운행 내내 상주한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엔 한해서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기사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기 위해서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팀은 “이번 사업은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① 자율주행버스 ‘동대문 A01’ 실물 사진으로, 15인승 규모다. ② 해당 버스는 장한평역과 경희의료원을 순환한다.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자율주행 기반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장한평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강아람(미디어학 2025) 씨는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니 신기하다”며 “앞으로 청량리역에서



학교로 오가는 길이 더 편리해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 문화



연애는 '대학생활의 낭만'에서 '사치스러운 것',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출처=프리픽)

'SNS 활용, 가성비 추구' 요즘 20대 연애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 ① 야구장으로 향하는 20대
- ② '헬시 플레저' 트렌드 속 건강한 식문화를 즐기는 20대
- ③ 20대 연애 트렌드 탐구, 키워드는 '온라인 만남', '가성비 추구'

#우리신문은 청년·학생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기사를 연재한다. 세 번째 순서로, 20대·대학생 연애 트렌드를 알아본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연애의 시작과 과정의 모습도 변해왔다. 대학생 수가 늘면서 미팅·과팅 문화가 생겼던 1980년대부터 싸이월드와 핸드폰 문자로 연애를 시작한 2000년대를 지나, 코로나19를 거친 지금 젊은이들의 연애편태는 어떤지 살펴봤다.

SNS·데이트 앱 사용 증가
마음 통하면 인스타그램 교환

연애 트렌드 첫 키워드는 '온라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됐던 2020년부터 온라인 연애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 8월 데이트앱 '비긴즈'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 세대 중 36.9%가 '데이트앱을 써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SNS 역시 연애를 시작하는 창구가 됐다. 지난 3월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2030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SNS는 20대 초반이 연인을 만난 경로 중 3위였다.

소개팅 전에도 미리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SNS를 보고 호감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서송이(사회학 2025)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는 호감이 생기지만, 반대의 경우엔 이성적 호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축제에서도 온라인 연애의 흐름이 드러났다. 지난 봄 축제,

서울캠퍼스 중앙광고동아리 '카피올림'은 소개팅 앱 '플롯'과 함께 'X룸 소개팅' 부스를 진행했다. 상대방의 얼굴도 모른 상태에서 채팅을 해본 뒤, 마음이 통하면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카피올림 대표자 홍유리(경영학 2022) 씨는 "요즘은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덜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연애유형검사 이후 잘 맞는 사람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스도 진행했는데,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물가 부담에 '가성비' 연애 유행 "집 데이트 빈도 잦아졌다"

다음 키워드는 '가성비'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회 데이트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74,700원이었다.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4,900원이 떨어진 수치다. 2022년 대비 2024년의 평균 소비자기장지수는 3.7% 상승했고, 최저임금도 700원 인상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데이트 소비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20대가 한 번의 데이트에 사용한 금액은 평균 71,000원

으로 밝혀졌다. 올해 최저시급 10,030원을 생각하면 학생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4년째 연애 중인 윤성도(철학 2021) 씨는 "기념일처럼 써야할 때는 쓰지만, 데이트 중 꼭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백(사회학) 교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한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성비 연애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외출은 곧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 데이트를 하는 커플도 늘었다. 장인영(미디어학 2023) 씨는 "집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됐다"며 "과거엔 주 1회도 많은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트의 절반 가까이 집 데이트를 할 정도로 빈도가 잦아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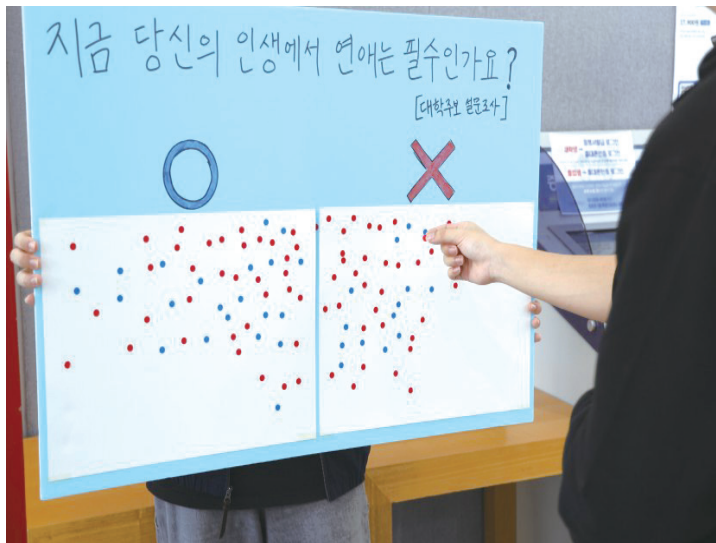
연애 콘텐츠의 인기에도 "연애가 필수는 아냐"

한편, 〈나는 솔로〉, 〈환승연애〉 등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나는 솔로〉는 지난 5월 분당 최고 시청률 3.2%로, 콘텐츠 화제성을 분석하는 '편덱스 차트'에서 비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티빙 〈환승연애〉 시즌3은 첫 시즌과 비교했을 때, 공개 첫날 티빙 신규가입자 74배 증가를 이뤘다. 엠브레인의 '2024 연애 예능 프로그램 관련 인식 조사'에서, 연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청층은 20대였다.

이런 수치를 20대의 연애 수요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26일 오전 청운관에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연애는 필수인가요?'라는 질문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1명의 학생이 응답했고, 57명이 '예', 54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절반은 연애를 필수라고 여겼지만, 나머지 절반은 연애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오'에 스티커를 붙인 정정우(국어국문학 2024) 씨는 "연애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오히려 미래의 더 좋은 연애를 위한 자기관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엔 연애가 필요하겠지만, 필수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유를 말했다.

연애 콘텐츠의 인기와 현실 연애 기피 사이의 괴리에 대해 김 교수는 "청년층이 매사에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다"며 "인생을 좌우하는 실패가 아니라면 실패를 통해 쌓는 경험이 인생에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애는 단지 이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우리학교 111명의 학생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연애는 필수인가요?'라는 질문에 거의 절반으로 나뉘었다. (사진=이환희 기자)

가을의 시작을 알리다 <황수미의 사운드트랙>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성악가 황수미(성악)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건 마티네(평일 오전에 열리는 공연) 시리즈를 18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아침의 설렘과 함께 막을 올렸다.

롯데월드 타워 안에 자리한 공연장은 잠실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돼 이동이 편리했고, 공연 전후로는 내부 카페와 음식점, 쇼핑몰 등을 함께 즐기며 하루 일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관람객 대다수가 일찍 도착해 차를 마시거나 사진을 찍으며 평일 오전을 만끽하며 공연을 기다렸다. 일상적인 출근길 인파와 달리, 공연장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고, 출연진의 제자들도 꽃다발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객석에 들어서자 홀 내부를 둘러싼 빈야드(부채꼴 형태) 구조의 웅장함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싼 1층부터 3층까지의 객석은 빼곡하게 차 있었고, 특히 1만 원으로 마련된 '마티네석'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조명이 꺼지고 황 교수가 무대에 등장하



'황수미의 사운드트랙'은 황 교수가 이름을 내건 첫 기획 공연이다. 왼쪽부터 피아니스트 안종도, 테너 김우경, 황 교수. (사진=조한음 기자)

자, 웅성임은 사라지고, 객석은 숨을 고른 듯 고요해졌다. 무대 한가운데 선 황 교수의 첫인사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관객과 떨림을 나누며 차분하게 진행을 이끌어 갔다. 그는 "아침 시간대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첫 무대는 예술가곡의 근원으로 불리는 독일 가곡이었다.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은 테너 김우경이 열창했고, 클라라 슈만의 '나는 어두운 꿈 속에서 있었네'는 황 교수가 직접 불러 무대를 이어갔다. 두 곡 모두 연인의 사랑을 주제로, 슈만 부부의 서정적이고 섬세한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따뜻하면서도 밀도 있는 목소리는 오전 시간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

덕이거나,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이들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했다. 마치 향긋한 모닝커피 향을 오래도록 음미하듯, 흘러나오는 곡의 여운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객석은 터져 나오는 박수로 화답했고, 몇몇은 작게 "브라보"를 외치며 감탄을 전했다.

출연진과 관객을 연결하는 대화 시간도 있었다. 황 교수는 평소 즐

겨 듣는 음악을 묻는 등 소소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갔다. 김우경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종도는 "퇴근 후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는 솔직함으로 객석에 웃음을 안겼다.

관객들의 표정에서도 만족감이 묻어났다. 이혜린(성악 2024) 씨는 등교 전 무대를 찾았다. 그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 같았다"며 "마티네 공연으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지은 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휴가를 냈다. "저녁 공연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여서 편안했다"며, "특히 황수미 소프라노와 러시아 가곡의 조화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공연장을 빠져나온 관객들은 인증사진을 남기며 즐거움을 기록했고, 무대 위 출연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황 교수의 첫 기획 공연이기도 한 <황수미의 사운드트랙>은 오는 10월 16일과 11월 20일, 총 두 차례의 추가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연은 매회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며, 인터미션 없이 약 70분간 이어진다.

'학문으로 여는 평화로운 세계'의 문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③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

건축에서 '문'이란 하나의 공간적 영역을 이루는 경계와 그 영역에 이르기 위한 통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문은 독립적인 구조물이라기보다 담이나 벽 같은 경계 요소와 공존할 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 국제캠퍼스 정문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우선 디자인이 남다르다. 폭 62미터, 최고 높이 22.5미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석으로 마감된 문은 모두 16개의 돌기둥으로 돼 있고, 곳곳에 배치된 조형물들이 건축미를 돋보이게 한다.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이디어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김동찬 교수의 설계로 완성된 이 문에는 다양한 상징이 곳곳에 숨어있다.

정문 중앙부 상단에 있는 7명의 남녀 군상은 진취성과 선도성, 탐구와 평화를 상징하고, 홀로 앉은 남성상이 들고 있는 석판과 천정은 학문의 수호와 정의를 상징한다. 여성상은 나무와 심장을 들고 있는데, 이는 생명과 양심을 뜻한다. 태양계를 돌고 있는 정문 양 끝의 4인 남녀 군상은 학문 탐구,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취적 기상을 상징한다. 문을 이루는 기둥의 측면에는 20명의 사람이 부조로 조각돼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상을 중심으로, 남녀 군상들은 각각 협동과 어울림, 학문의 성취와 기쁨을 뜻한다. 아치형의 좌우 익랑(翼廊) 천장을 올려다보면 목련이 보인다. 이 목련은 꽃봉오리부터 만개한 모습까지 다섯 단계로 표현돼 있는데, 발전하는 경희인을 상징한다.

이름도 독특하다. 정식 명칭은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 캠퍼스 출입문인 동시에 탑이다. 정문 중앙 이맛돌을 올려다보면, 'NEO RENAISSAN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네오르네상스'는 교육자이면서 평화운동가였던 설립자가 주창한 실천 운동의 명칭이다. 그는 20세기 인류 문명이 낳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 인간 부재라는 실존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세 말 정신문명의 한계점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성을 되찾자'라고 외치며 르네상스 운동에 나섰던 것처럼, 오늘 인류가 또다시 직면한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제2의 르네상스 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지구공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 네오르네상스 운동이다.

새천년 초입, 2001년 9월 28일 개최된 정문 준공식에서 설립자는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류 화합과 평화의 바탕 위에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① 2001년 9월 준공된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 전경 ② 정문 조각상에는 다양한 상징이 숨어있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을 통해 세상의 새롭고 깊은 학문과 사상이 우리를 향해 들어오고, '학문을 통한 평화'라는 경희의 이

상이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뻗어나가길 바라는 염원이 국제캠퍼스 정문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핸드볼부 황금기로 이끈 주장 “국가대표 · 해외 진출도 꿈꾼다”



나 선수는 “어려운 걸 알지만, 국가대표에 뽑혀 실력을 보여주고 해외까지 나가는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나 선수 제공)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핸드볼부 주장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매 호마다 체육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 아니라,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네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학교를 다시 대학 핸드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장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만났다.

과거 황금기 재현의 주역 어느덧 4학년 마지막 학기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학교 핸드볼부는 지난 1980~90년대, 대학 무대를 호령했었다.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다시 5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하며 트로피를 독차지했다. 팀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나 선수는 지난 5월 대학핸드볼통합리그에서 득점왕을 수상하며 우승에 공을 세웠다. 나 선수는 “입학 연도에는 3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팀이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계속 우승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그는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이제는 캠퍼스가 집보다 더 집 같다”고 말했다. 새내기 땀 어려웠던 감독님과도 호흡이 잘 맞게 됐다고 한다. 나 선수는 “예전엔 경기 중 지시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3년 이상을 보내면서 팀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승을 독차지하다 보니, 다른 대학 선수들에게도 가장 꺾고 싶은 상대가 됐다. 나 선수는 “소문을 들어보면 우리를 이기고 싶어 하는 팀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대회 준우승 패인은 ‘방심’ 그만큼 전국체전 의지 높아

명실상부 대학 최강팀이었지만, 얼마 전 열린 대학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에서 원광대에 패했다. 대회 첫 경기였던 강원대와의 예선전은 34-35로 패배했다. 무패우승을 거듭했기에 이런 패배는 이번이었다. 나 선수는 “계속 우승을 했던 것이 방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기분 좋은 패배는 없지만, 때로는 패배라는 경험을 통해 승리할 때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선수들은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 10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원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나 선수는 “훈련할 때 예전보다 선수들에게 강한 요구를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다”며 전국체전에 대한 의지를 알렸다.

대회 첫 상대 한국체대는 지난

여러 대회에서 중요 길목마다 만났던 상대다. 나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실업팀을 이겨보자는 목표보다는, 첫 경기 상대 한국체대를 확실히 잡고 가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관문 10월 ‘H리그 드래프트’ “언젠가 해외 진출도 하고 싶다”

오는 10월에는 핸드볼 실업리그 ‘H리그’의 드래프트가 열린다.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이 실업구단에 입단하기 위한 관문이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나 선수도 드래프트에 참여한다. 나 선수는 “드래프트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뽀뽀 쪽과 아닌 쪽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걸 봤다”며 “많이 긴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막 프로선수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시기지만 그는 큰 야망을 품고 있다. 나 선수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리그에도 진출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등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는 “어려운 걸 알지만, 국가대표에 뽑혀 실력을 보여주고 해외까지 나가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체전을 마지막으로 우리학교와의 여정은 끝난다. 나 선수는 “최근 들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도 그의 발걸음은 훈련장을 향했다. 나 선수는 직전 대회 준우승과 대학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후회 없는 대회를 위해 매일 땀 흘리고 있다.

농구부 하반기 4연패 성균관 · 단국대전 연패 플레이오프 진출 빨간불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농구부가 지난 22일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 단국대전에서 56-62로 패배했다. 하반기 4연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농구부는 1쿼터에 22-8로 앞서 나갔지만, 2쿼터는 18-24로 밀렸다. 이어지는 3쿼터에선 6-15로 흐름을 뺏기며 단국대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남은 시간에서 재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열렸던 16일 성균관대전에서도 70-77로 패배했는데, 2쿼터 역전 이후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됐다.

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 대해 “전반전에는 좋은 수비에 이어 스틸로 연결되는 속공 득점으로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2쿼터부터 상대의 강한 수비에 공격력이 저하된 것이 패인이었다”고 말했다. 김현국 감독은 “패배의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며 “부상 선수들이 많아 정상적인 라인업 가동이 힘들었다는 점과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렸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단국대전은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 우 선수의 대학 마지막 홈경기였다. 그는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후회없이 하고 싶었다”며 “공격 부분에서 자신있게 플레이했던 점과 적극적인 수비 및 리바운드 가담으로 인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달 1일에는 정규시즌 최종전인 동국대와의 원정경기가 남아있다.

승리한다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8위 안에 들기는 어려워졌다. 동국대(6위), 단국대(7위), 한양대(8위)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수는 상명대의 경기 결과에 달려 있다. 만약 현재 11위인 상명대가 남은 경기에서 동국대나 단국대 중 한 팀에게라도 승리한다면, 우리학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동국대나 단국대 역시 7승 9패로 우리학교, 한양대와 동률을 이루게 되며, 순위는 팀 간 득실 편차로 결정된다. 현재 우리학교(-3점)는 단국대(-7점), 한양대(-2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경우의 수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동국대전을 이기는 것이다. 우 선수는 “마지막 경기만큼은 꼭 승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수비 부분에서 보강할 점이 있다”며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우 선수를 포함한 4학년 안세준(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 지승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2026 KBL국내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한다.

우 선수는 “4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니 정말 빠르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대학에서 좋은 추억도 많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부가 U-리그 하반기 4연패를 기록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오피니언

11

사설

중운위 자격 박탈 논의, 회칙 정비 계기로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세 단과대 학생회장의 연이은 불참으로 인한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1조 5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핵심 사안은 불참 그 자체라기 보다는 해당 불참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회칙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미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회장들은 모두 실습 등의 이유로 연속 3회 이상 불참했다. 이에 대해 중운위에선 불참사유서를 제출 받고, 이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 회칙에서는 ‘특별한 사유’의 예시도, 사유서 제출 및 심사의 절차도 명시돼 있지 않다. 회칙의 모호함은 자칫 사유 인정을 주관적 판단의 영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치대의 경우 실습 시간이 부족 학생회장도 겹쳐 대리인을 세우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운위는 단순 보고체가 아닌, 학교 자치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주요 기구다.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연속적으로 불참한다는 것은, 학생 구성원의 대의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인’에 대한 기준조차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학생회장은 대리 참석 시 의결권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임원은 의결권 없이 참석권만 주어진다. 이마저도 회칙이 아닌 관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 공적 행사 등으로 대표자가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최소한 단과대 학생회 임원 중 누군가는 대리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말이다.

치대 외에 다른 단과대의 경우 왜 대리인을 세우지 않았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회칙상 근거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인지, 혹은 책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그 원인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자치의 구조적 허점을 점검하고 회칙을 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이전 총학생회에서 논의돼 왔었지만, 구성원들간의 의견이 달라 쉽게 회칙을 개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실습이나 질병, 군 복무 등 반복되는 불참 사유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서 제출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역시 회칙에 근거

를 명확히 뒤야 한다.

단과대 대표는 단지 회의 참석자 이상의 존재다. 학우를 대신해 발의하고 의결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대표자는 우리신문의 질의조차 회피했다. 이처럼 중운위 구성원 박탈 여부가 달린 중대한 상황에서 소통을 외면한 행위는 자치기구 대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의 문이다.

세 단과대 학생회장에 대한 처분은 가까운 시일 내 중운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신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다. 단과대 대표는 학생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리다. 불가피하게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대안을 마련하고, 회칙이 부족하다면 그 개정을 요구하는 것 역시 대표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세시봉

학폭과대입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종합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한다.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더글로리> ‘연진이’의 역할이 컸다. “사과하지 마. 사과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 벌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널 도우면 천벌.” 문동의 복수 이야기로 흘러가는 더글로리를 보며 사람들은 분노에 공감하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

대중의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은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으로 곧바로 나타났다. 물론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맞학폭(쌍방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하나의 대응 공식으로 자리 잡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분에 대한 경중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합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의 2026년도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기록은 엄격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추천형)와 실기위주(체육인재) 전형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 기록만 있어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며,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도 일부 전형에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지원을 막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연진이를 못 막았을까. 더글로리가 일으킨 사회적 반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다. 다만 그 형태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엄벌 대책이 된 것은 아쉽다.

청소년기는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제도화된 낙인만 남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연진이’를 양산하게 될지 모른다. 정의의 이름으로 내린 처벌이 또 다른 불균형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건 뜨거운 분노보다도 차가운 성찰이다.

취재수첩

합리적인 AI 활용을 위해서

김규연 기자
imgomadoi@khu.ac.kr



“AI를 권장하는 교수님과 반대하는 교수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생성형 AI, 대표적으로 챗GPT는 대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든든한 동반자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수업이나 과제, 논문 작성까지 AI 손길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교내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가 만족할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AI의 무분별한 사용과 지나친 의존 현상을 목격한 교수들이 AI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학교도 AI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학에서 AI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반

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AI 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보면, AI 교육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서 출범한 공대 AI 위원회의 성과 교류회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관점 및 우려 사항이 논의됐다.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AI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거고적 차원의 AI 시스템 구축을 예고한 만큼, 현장의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AI 활용 문제의 핵심이 결국 관련 교육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AI 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고 의미 있는 시작점이다. 다만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성급히 AI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AI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AI 위원회가 교육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갈길 기대한다.

만평 연구생활 장려금 수혜자 확대 필요



교수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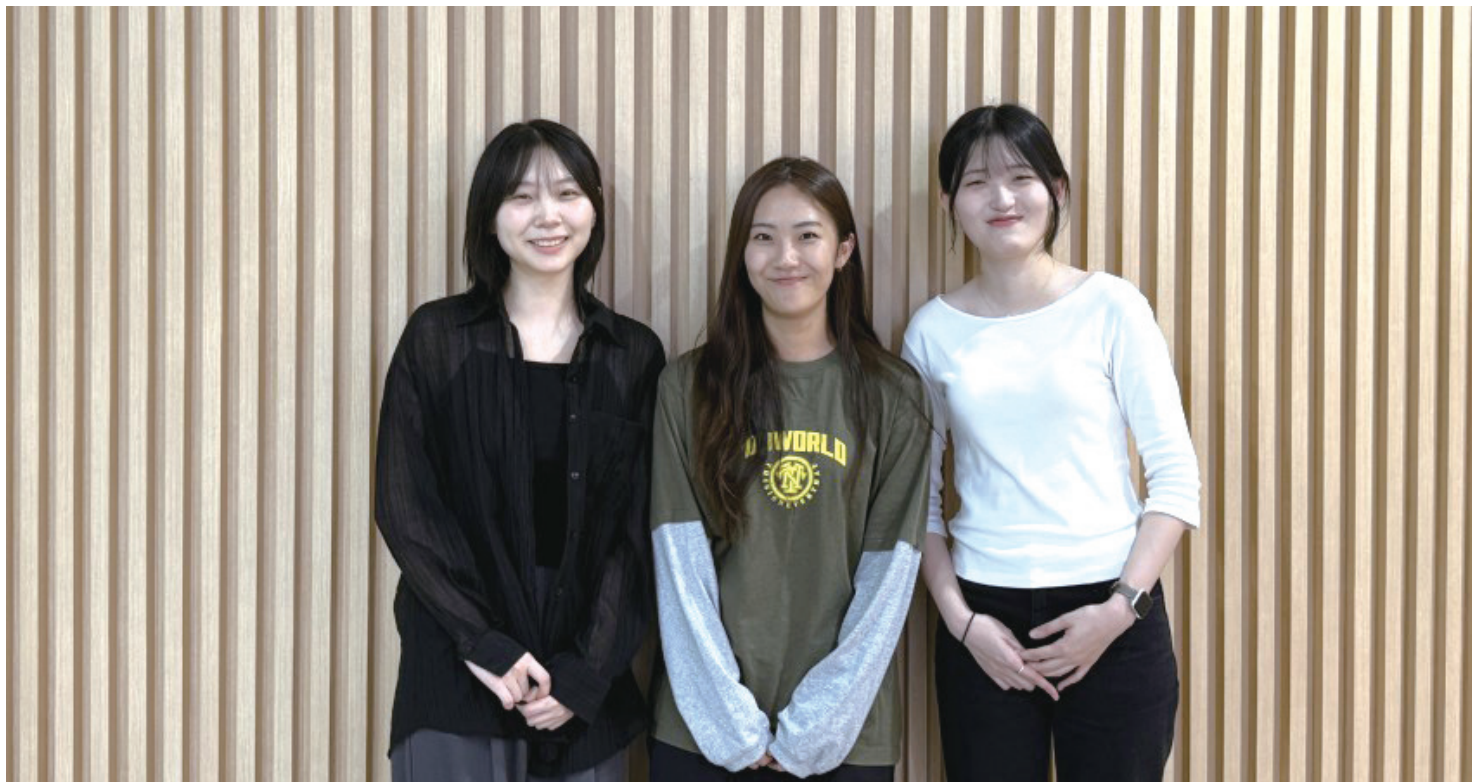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12 인터뷰



팀원들은 “이번에는 학생 작품이라 제한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냈지만, 조경가로 성장해서 실제로 구현되는 작품을 제 손으로 설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서라수 기자)

조경학 3인의 학생, 국제 공모전 수상 ‘바다 사막 되살리기’ 새로운 전략 인정받아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미국조경가협회(ASLA)가 매년 주최하는 ‘아슬라 학생상(2025 Asla Student Awards)’에서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학생 세 명이 지난 5월 ‘일반디자인(General Design)’ 부문 명예상을 받았다. 이들은 ‘강에서 해저까지: 갯녹음 해결을 위한 수직적 전략’을 내세우며 주목받았다. 유차니(환경조경디자인학 2021)·김정원(환경조경디자인학 2021)·이지윤(환경조경디자인학 2020) 씨를 만나 작품에 담긴 고민과 준비 과정에서 경험을 들어봤다.

아슬라 학생상은 학생 대상 설계 및 연구 공모전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조경·환경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디자인, 주거 디자인, 도시 디자인, 분석 및 기획, 커뮤니케이션, 연구, 학생 사회 봉사상, 학생 협업 부문에서 우수상과 명예상이 수여된다.

갯녹음 바다 사막화 해수 흐름 차단된 제주도 실험지로

유차니·김정원·이지윤 씨는 갯녹음 현상을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갯녹음은 해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황폐해지고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는 현상이다. 김 씨는 “갯녹음을 해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해저에만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내륙과 연안까지 수직적으로 바라보며 문제의 흐름을 연결하자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그동안의 대책이 주로 해저에서 해조를 심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들은 내륙과 연안을 아우르며 수직적으로 문제의 흐름을 바라보자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

전략은 내륙-연안-해저로 이어지는 설계로 구체화됐다. 내륙에선 하천이 오염돼 바다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자연 제방을 회복한다. 연안에서는 사구의 모래가 바다로 날아가지 않도록 사구를 해안림과 연결한다. 해저에는 물고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 어초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계 실험지로는 제주 사계리가 선정됐다. 사계리는 해수 온도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으로, 갯녹음 현상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또한 해수의 흐름이 인위적 개발로 차단돼 갯녹음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제주에서 나오는 현무

암으로는 오염물을 걸러내는 정화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씨는 “현무암에 포함된 특수한 영양분은 한국의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발 맞는 세 명 ‘삼박자’ 완벽한 팀워크의 결과물

이들이 갯녹음을 주제로 선정해 구체화한 건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 과정을 거치면서다. 카페에서 대화 중 영화 ‘들텔’의 사막 풍경이 언급됐고, 이들은 ‘바다 사막’ 개념에 흥미를 느꼈다. 이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며 내륙-연안-해저를 잇는 수직적 생태망을 주제로 한 연구 설계를 떠올린 거다.

이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팀워크를 발휘했다. 이 씨는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당시 부지 설계와 조경 수목 관리 경험을 활용해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유 씨는 그 전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 씨는 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 씨는 “국내에서는 갯녹음을 다룬 자료가 많지 않아, 해양자원관에도 메일과 전화를 넣었다”고 말했다. 수심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군사 기밀로

공개가 제한돼 김 씨는 3~4곳에 전화를 돌리며 자료를 찾아야 했다. 유 씨는 “셋이 만나면 의견이 활발하게 교류돼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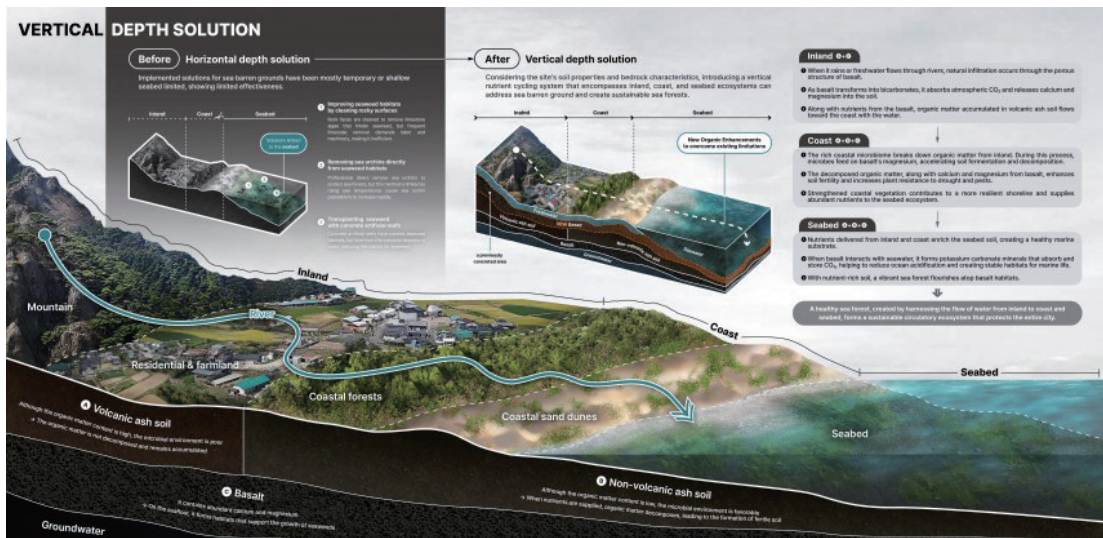
큰 꿈을 향한 도전 정신도 셋이 일치했다. 팀은 졸업 작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국제 대회에 도전하게 됐다. 원래는 한국 최대 조경 공모전인 ‘환경조경대전’에 작품을 내기로 했지만, 개강 수업에서 “‘Asla Student Awards(아슬라 학생상)’도 좋은 기회”라는 전진현(조경학) 교수의 조언에 이들 모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교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목표는 ‘조경가’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싶어

팀원들은 수상 소감을 전하며 뜻깊은 순간을 돌아봤다. 유 씨는 “아슬라가 워낙 저명한 대회라 사실 저희 팀이 수상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로 남았다.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제출 기한을 놓친 좌절도 있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연한 순간에 영감을 건진 경험을 언급하며 “영화나 책, 여행처럼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좋은 해법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11일 미국에서 열리는 ‘2025 아슬라 학생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명예상을 받는다. 함께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15분간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개요, 팀을 꾸린 과정, 작품에 영감을 준 요소 등을 발표한다. 팀원들은 “이번에는 학생 작품이라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냈지만, 조경가로 성장해서 실제로 구현되는 작품을 제 손으로 설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갯녹음을 주제로 선정해 만든 결과물.

(사진=이 씨 제공)